

우리들 솜씨 어때요

수원여대 제1회 졸업작품전

수원여자대학 제과제빵전공(주임 교수 황윤경)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인제캠퍼스 미림관에서 세계 각국의 빵·과자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회 졸업생이 되는 제과제빵전공 학생들이 마련한 첫 작품전이라는 의미 외에도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프로 못지 않은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회 졸업작품전을 위해 33명의 여학생들은 한달여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각국의 제품 특징과 배합을 수집하고 제과 기능장들의 도움을 받아 밤 늦게까지 작품을 제작했다. 4명씩 8개조로 나눠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 수원여대 제과제빵전공 학생들은 독특하게 '테마'가 있는 작품전을 구성해 이 행사에 기울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국·일본·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위스·미국 등 8개국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공예 제품으로 표현하고 각국의 대표 제품을 전시했다. 이들 제품에 국가명과 그 나라의 대표적인 제품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한 안내문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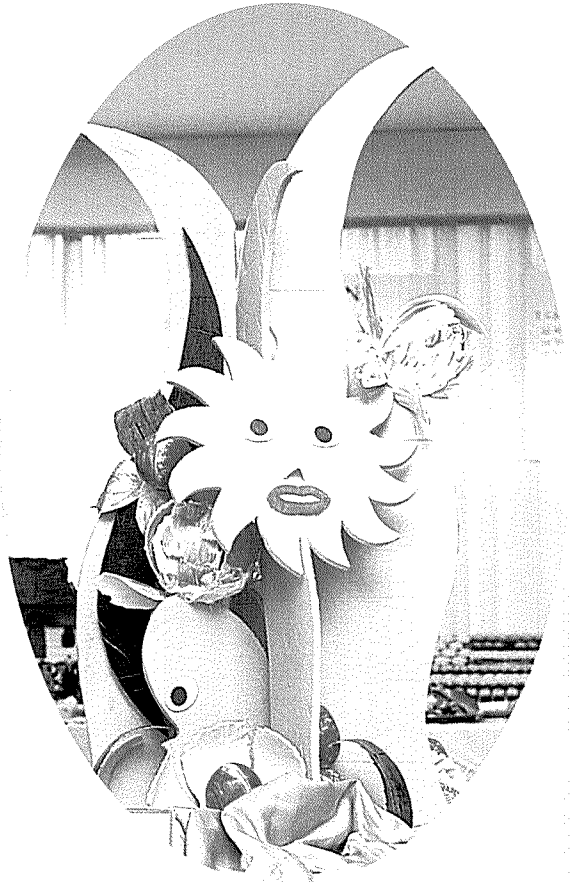


▲ 관람객들에게 상세하게 제품 설명하는 자세에서 예비제과인의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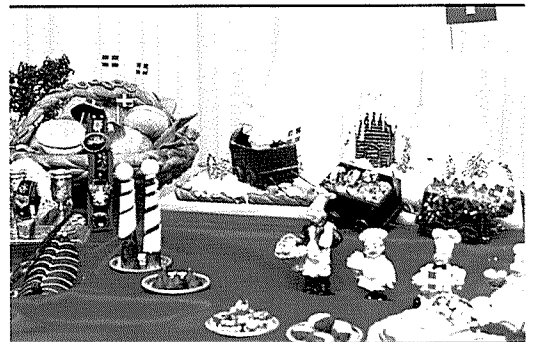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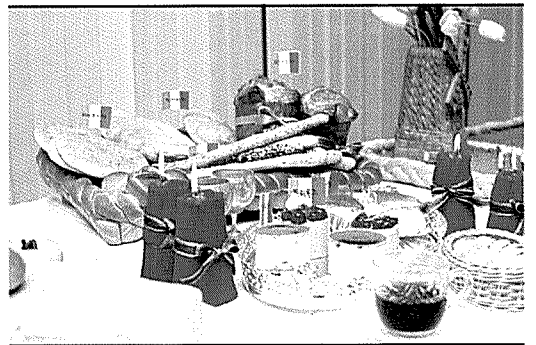
공예 제품의 경우 네덜란드의 풍차와 튜울립, 이탈리아의 콜로세움과 피사의 사탑, 독일의 국가 지형 및 주요 도시, 미국의 서부시대 주점 및 마차, 스위스의 눈 덮인 산 풍경 등을 표현해 시선을 끌었다. 일본은 고성(古城)과 기모노 입은 여인, 다기(茶器), 한국은 초가집과 세배하는 모습, 윷놀이, 썰매타기,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을 섬세하게 표현해 어릴 적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했다.

또 학생들은 각국의 대표 제품으로 네덜란드의 크림치즈빵·타르트류·쿠키, 프랑스의 바게트·6가지 무스류·와인, 독일의 호밀빵·스톨렌·브리첵·애플 파이, 티 타임이 발달한 스위스의 쿠키류와 초컬릿류를 제작 전시했다. 이밖에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풀먼식빵·베이글·햄버거, 일본은 화과자·만주, 한국은 송편·짬뽕·강정을 전시했다.

이번 작품전에서 학생들은 각국의 특징적인 이미지 표현, 대표적인 제품의 주제 선정과 제작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다. 또 행사 내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자신들이 만든 제품 앞에 서서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곧 베이커리 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 제과인으로서의 진지한 자세를 볼 수 있었다. <글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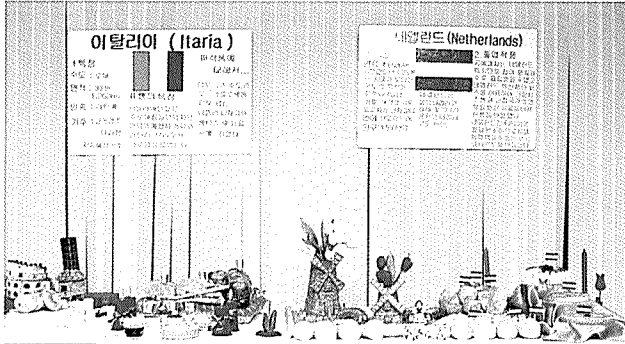


▲ 학생들이 김영모 기능장과 공동 제작한 초컬릿·설탕공예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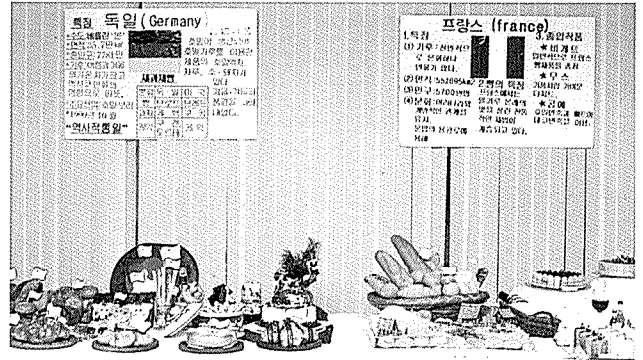
▲ 각국의 특징적인 이미지 표현과 대표 제품을 전시해 '테마가 있는 작품전'을 구성했다.

8개국 테마별 작품 컬렉션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수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과 피사의 사탑 · 나폴리 피자 가마 · 베니스의 베를 공예로 표현. 아울러 대표 제품으로 파네토네, 치아바타, 포카차, 티라미수를 전시.
- 네덜란드 : 이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인 풍차와 튜울립 등을 공예로 제작. 티타임이 발달된 네덜란드의 쿠키와 아몬드 · 복숭아 타르트, 곡물빵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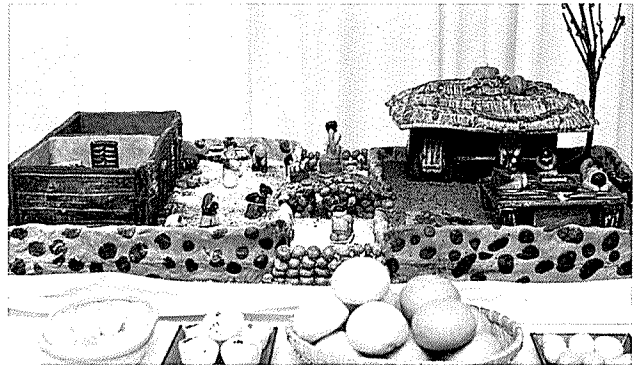
▲ 독일 · 프랑스

- 독일 : 마지팬으로 독일 국가 지형과 베를린 · 뮌헨 등 주요 도시를 표현. 이 나라를 대표하는 호밀빵과 부활절빵, 스톨렌, 키르쉬 토르테, 브리첼, 애플 파이, 아펠쿠첸, 쿠키를 전시.
- 프랑스 : 아트막한 푸른 산과 통나무집을 공예로 표현. 프랑스의 대표적 빵인 바게트를 비롯해 커피 · 오렌지 · 요구르트 · 체리 · 블루베리 무스케이크와 와인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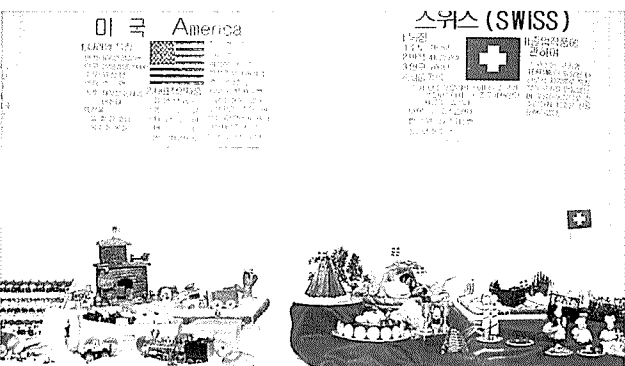
▲ 일본

일본 특유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고성(古城)과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자를 공예로 표현하고 다기(茶器)도 전시. 대표 제품으로 화과자와 만주를 제작해 전시.



▲ 한국

가장 한국적인 모습의 초가집. 설날과 추석을 주제로 어릴 적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세배 장면, 옷놀이, 썰매타기, 눈사람 만드는 아이를 공예로 표현. 송편과 찜빵, 강정을 전시.



▲ 미국 · 스위스

- 미국 : 서부 개척 시대의 주점과 마차, 성조기를 통해 미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표현. 풀먼식빵을 비롯해 햄버거, 베이글, 피칸 파이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을 제작해 전시.
- 스위스 :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의 이미지를 로말 아이싱을 이용해 눈 덮인 산 풍경으로 표현. 티 타임이 발달된 이 나라의 쿠키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류를 제작해 전시.